

북한의 여성들과
마주않을 날을 꿈꾸며

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다운 혁명의 어머니로 살겠어요

페미니스트와 함께 떠나는 북한

북한을 공부하며 나의 질문은 하나로 수렴되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과연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북한의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동등한 인민으로 살아가는가? 질문의 답을 찾아나서며 나는 재미있는 아이러니를 마주치게 되었다. 1950년대 한 미국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북한의 여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북한의 '여성성의신화'는 여성을 때로는 노동자로 때로는 어머니로 부르고 있었다. 북한의 조선화와 신문에서 재현되는 여성성의 신화를 찾아 떠나보자! 이 글은 가깝지만 먼 북한에 닿으려는 한 페미니스트의 시도이다.

북한사회에서 재현되는 여성성의 신화를 찾아서

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다운
혁명의 어머니로 살겠어요



지은이 이담

보부아르가 좋아서 불문학을
공부하다가 인류학에
퐁당 빠져버렸다.

차례

들어가는 글

- 페미니스트가 마주하게 된 북한

PART 1 전후복구: 장총과 벼짚을 잡은 여인의 초상

여성노력을 광범히 인입하자 _ 025

남강 여인, 쌀을 사수하며 전진하라 _ 025

PART 2 더없이 "행복한" 북한 어머니의 등장

모성으로서의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만큼 _ 025

북한의 슈퍼우먼으로 성장하여라! _ 025

PART 3 사회주의 대가정 혹은 가부장제로의 회귀

우리의 아버이 수령, 우리의 어머니 당! _ 075

김정숙, '여성성의 신화'의 중심에 서다 _ 075

나오는 글

- 여성들이 혁명화되면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다운 혁명의 어머니로 살겠어요

북한사회에서 재현되는 여성성의 신화를 찾아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당신이 돌아보고 얼마나 먼지, 또 당신이 얼마나 왔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이다.
- 베티 프리단 Betty Friedan -

1. 들어가는 글

페미니스트가 마주하게 된 북한

2016년 5월 새벽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히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범인은 화장실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며 범죄의 타겟이 될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여성 중 아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범죄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라고 명명되며 피해자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한편,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되었다. 이 글을 쓰는 2020년 우리는 강남역 살인 4주기를 맞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에 대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 약속했다.¹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회문화적 차별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990년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영페미니스트'들의 등장² 후 20-30년 만에 다시금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한 여성학자가 페미니즘 강연에서 지적하였듯 한국의 많은 대중은 페미니즘을 인터넷 상에서 접하며 왜곡된 여성주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오해와 반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³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

1 『프레시안』, "정세균, 강남역 살인 4주기에 "여성에 대한 범죄 끝까지 추적""', 2020년 5월 17일자.

2 『경향신문』, "한국 여성 페미니즘의 역사", 2018년 7월 21일자.

3 최근 페이스북 상에 한 남성이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개시하며 조롱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당시 많은 남성들이 댓글에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며 여성들을 향한 혐오발언을 서슴없이 내비쳤다. 많은 여성유저들이 페이스북코리아에 신고했지만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가해지지 않았다.

계적으로 #MeToo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관심, 그리고 혐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는 '전 세계'라는 범주에 많은 국가를 소외시킨다. 가장 가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그 동안 대규모기아사태, 성분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 차별 등에 대해 국제적 비판 혹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조·중 국경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과 아동들이 쉽게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분단 이후 "남조선은 여성의 권리를 박탈한 사회"이지만 북한은 "남녀평등을 실현"했다고 주장해왔다(김석향 2005: 26). 억지스러운 주장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남녀평등을 제도화했으며 여성해방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여야 한다"(김일성 1984: 323)는 김일성의 교시가 명시하듯 여성은 북한이 그리는 사회주의 이상향의 주축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민, 혁명 역군으로 호명한 것인가? 여남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였지만 기아사태로 인해 무너진 것인가?

북한의 조선화, 신문, 잡지 등은 여성을 남성과 다르게 호명하고 있다. 그들이 빚어내는 여성은 '여성성의 신화 The Feminine Mystique'의 북한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성의 신화'는 20세기 중 후반 전업주부로 살아가던 미국의 한 주부의 저작을 통해 알려졌다. 베티 프리단은 스미스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연구한 수재였으나 결혼 후 전업주부의 삶을 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 동창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심층 면접을 진행하며 미국 여성들의 삶에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된다. 이 문제가 바로 ‘여성성의 신화’로 실제로 존재한 적 없는, 여성의 본질과도 무관한, 그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신화를 가리킨다(김상애 외 2019: 89). 정부, 교육기관, 대중매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상적인 여성성을 양산했다. 현모양처로 대중화된 여성상은 여성들의 자아를 빼앗아가 자아의 성장을 방해했다. 미국, 중산층, 백인이라는 키워드만으로 베틀 프리단은 북한 체제와 이념에 대해 척척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미국 중산층 사회에서 그녀가 포착한 ‘여성성의 신화’는 북한에서도 유효해 보인다.

북한은 여성억압의 원인을 봉건적 가부장제로 진단하고 1946년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시작으로 가족제도를 개혁했다(남인숙 2001: 111). 원칙적으로 실업자가 없는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은 경·중공업 등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프리단(1963)은 『여성성의 신화』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에 뛰어들어 실질적 성 평등과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는데, 북한은 1950년대 미국 사회에 등장한 프리단의 주장을 이미 실현했던 것 같다. 북한 여성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인생 여정 외의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여성성과 모성의 신화를 극복하여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이룩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완전평등이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확하다. 제도의 존재와 실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담론이란 개인, 제도, 정치, 문화 등 사회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한 동기만 보더라도 제도상 불평등 개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물결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평등은

결코 일상생활에서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2물결에서는 문화와 사회적 관습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혁명역군으로 호명된다. 그렇지만 그 동기나 양상은 분명 다르며 북한에서 제작, 출간, 창작되는 모든 자료가 ‘여성성의 신화’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베티 프리단의 부고 기사에 “이 책은 1963년 현대 여성운동에 봉화를 올림으로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회조직을 영구히 바꿔버렸다”고 썼다.⁴ 이 글은 그녀의 논의로 북한 사회조직을 바꾸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북한 여성인권 실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베티 프리단이 북한의 여성을 마주하게 된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녀가 북한의 여성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분석을 할까? 루스 베네딕트 Ruth Fulton Benedict가 일본에 현지조사 할 수 없던 상황에서 『국화와 칼』을 써내려갔듯 이 글도 북한 1차 자료, 2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재현하는 여성상을 알아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이 재현하는 여성상은 ‘여성성의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이제부터 조선화와 《로동신문》, 《조선녀성》의 일부 기사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재현되는 여성상을 밝히고자 한다.

4 New York Times, “Betty Friedan, Who Ignited Cause in ‘Feminine Mystique’, Dies at 85”, 2006년 2월 5일자

2. 전후 복구

： 장총과 벚짚을 잡은 여인의 초상

여성로력을 광범히 인입하자!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폐허상태가 되었고 전후 복구가 절실히 필요했다. 공업 부문에서는 8700개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파괴되며 1953년도의 공업 생산량은 1949년의 64퍼센트에 불과했다(김성보·기광서·이신철 2013: 149). 농업 부문 역시 폭격으로 관개시설과 제방, 그리고 저수지들이 잇따라 파괴되어 37만 정보의 논밭이 피해를 입었다(김성보 외 2013: 149). 북한 지도부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인민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1953년 8월 김일성은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한 로력 문제의 해결대책」에 관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여성로력을 광범히 인입함으로써 우리의 로력전선을 보충하며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체신·보건·문화·교육 등 기관에서 사무보는 일에 여성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그들의 노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상 편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무기관에서 남성로력을 여성로력으로 교체하여 그들을 생산직장으로 돌릴 것이다(조선중앙통신사 1955: 4)”

전후 남성노동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여성노동력은 절실히 필요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이 강력하게 장려되었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농업집단화가 진행되며 농촌 여성들의 농업생산참여는 매년 100%씩 증가하여 1958

년에는 부녀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의 29%를 차지하게 된다(김선옥 외 1992: 60). 김일성은 “남성로력을 녀성로력”으로 교체할 것이라 했으나 사실 “사무기관”에 한정된 교시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업·체신·보건·문화·교육 등 기관에서 사무보는 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광복 직후 담론 상으로만 주장되었던 여성 노동력이 실제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46년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로동법령」,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잇따라 제정되며 사회주의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도부는 《조선녀성》을 통해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남녀평등의 필요성과 여성의 노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여성들이 온갖 모락을 뒤집어쓰고 온갖 멀리로 사라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나(“농촌의 현상보고” 1946년 9호) “토지개혁과 로동법령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남녀평등권 법령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획득하고 봉건적 예속관계를 깨끗이 청산하였으며 굴욕적인 비인간적인 생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된 것이다(김석향 2005: 34).

1958년부터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양가족의 중 한 명이 아니라 인민근로자로 변환할 필요가 있었다. 1953년 8월부터 시작된 전후 복구 준비단계사업, 1954년부터 실시된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민생활은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다. 1954년 흉년, 공산품과 식료품의 부족한 배급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북한은 인민소비품생산량을 늘려 인민생활을 높일 방안을 간구하게 되었고 여성은 다시금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다. 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회의에서 김일성은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며 여성들을 빠짐없이 생산노동에 참가시

키도록 독려한다(김선옥 외 1992: 61). 1958년 내각결정 84호로 「인민경제 각 부문에 녀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를 공포하게 되고 1960년대에는 사무원뿐만 아니라 방직공장, 양수기운전공도 여성노동자로 교체되기 시작된다.

남강 여인, 쌀을 사수하며 전진하라

제도가 여성을 부양가족에서 산업역군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화에는 강인한 여성 인민이 등장하게 된다. 김의관은 대학 졸업 후 6·25 전쟁에서 활약했던 남강마을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성들은 전쟁 당시 치마폭에 낫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적군 있는 곳에 들어가 벼를 베어 전쟁터의 병사들에게 밥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였다(박계리 2012: 61). 조선화의 정수는 주제화(문범강 2018: 111)로 인물은 주제화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1960년대 대표작들 중 거의 유일하게 여성을 중심인물로 다루고 있다. 작품은 공기원근법과 선원근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공간감을 형성하여 담묵화의 전통적 기법에서 사실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인물들이 정면을 향해 고개와 허리를 내밀어 더욱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운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품의 원근감과 표현의 세밀한 정도를 통해 감상자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화면은 중심에 총을 쏜 여성에게 감상자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박계리 2012: 60). 입체적으로 표현된 장총과 힘줄이 보이도록 장총을 잡은 손이 상황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한편, 정면을 똑바로 향한 여성의 시선은 엄숙하고 숭고한 느낌까지 받게 한다. 요컨대 「남강마을의 녀성들」에서 강조되는 아름다움은 영웅적인 것과 관련될 것이다. 리기도(2010)는 “영웅적인 것은 물론 제일차적으로는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

를 체현하지만 이 범주의 미학적 특성은 그 행동성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홍지석·전영선 2014: 443). 가로로 긴 화면과 화면을 차지하는 대각선 구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충을 진 여인네의 대담성과 용감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여성은 누구를 위한 영웅인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주체미술의 대전성기》에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미술만이 인류의 참다운 미술로 될 수 있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조선화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키워내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밝히며 주체미술로서의 조선화를 정의한다.

“주체미술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워주고 그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며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철저히 복무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다(홍의정 1987: 13).”

『남강마을의 여성들』은 각각 1972년, 1974년에 제시된 사회주의 헌법과 주체사상화보다 대략 6년 정도 앞서지만 주체미술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작품이었다. 1960, 70년대 여성 노동력 인입정책은 노동력 확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부엌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미래지향적 차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국가기획이었다(김귀옥 외 1997: 32). 요컨대 여성을 부양가족,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가로 변혁시키는 의도가 인입정책 기저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을 ‘부엌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여성해방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북한 사회주의의 성공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획이었다.



김의관, 「남강마을의 녀성들」, 1966, 121x264cm, 조선화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유희로동력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여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실무적 조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사업으로 여겨야 합니다(조선중앙통신사 1971: 469).”

김일성 시대 북한 미술계는 특정 전통을 정통화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 미술사적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음에도(박계리 2012: 61),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남강마을의 여성들」은 1973년 이전의 대표적인 주제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작품을 향한 높은 평가는 비단 작품성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앞서 밝혔듯 북한의 예술은 인민에게 복무할 때에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상황과 가부장제라는 이중 억압에 놓여 있었고 순종적, 수동적 존재로 각인되어 왔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자화상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남강마을의 여성들」은 “남성들 못지않게 후방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여성들의 모습을 주제로 삼음으로써 인민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박계리 2012: 61)”하고 있다. 프리단(1963)은 미국 중산층 백인여성들이 결혼 후 불행해지는 원인은 자화상의 결핍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성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여성 자신과 실제로 거의 관련이 없는 대중화된 여성상이 위력을 발휘하며 여성들의 삶을 너무 크게 지배(프리단 1963: 160)”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실현가능할 대안의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1960-1970년대 북한은 수령이 다스리는 사회, 3대 혁명(문화혁명·기술혁명·사상혁명)에 복무할 여성인민주체를 형성하고자 했고 지도부는

그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설정한 여성의 본보기는 대안의 세계를 상상하게 할 자화상이었는가, 아니면 여성 자신과 크게 관련이 없는 대중화된 여성상이었는가? 분명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프리단이 목격한 권태와 허무에 사무치는 백인 중산층 여성이 아니다. 이들은 혁명의 역군이며 이데올로기를 짊어진 젊은이이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지도부가 대중화 하고자 한 여성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북한 지도부가 대중화 하고자 한 여성상과 여성 자신의 삶이 얼마나 관련되었는지가 될 것이다.

3. 더없이 "행복한" 북한 어머니의 등장

모성으로서의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만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표면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 실현의 일환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을 사회활동에 널리 참여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었다(김선옥 외 1992: 25). 그러나 당시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진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듯 북한 역시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가사와 양육의 전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가사노동까지 사회화하는 노력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간주(프리단 1963: 135)”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양육과 가사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젠더규범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이 사회의 일원, 노동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에게는 모성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김일성의 교시에서는 “녀성들은 체질상 남성보다 연약하고 모성으로서의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잡다한 가정적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어린이를 튼튼히 키우고 어머니들의 건강을 위하여 녀성들이 남자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역할을 다 하게 하려면 반드시 녀성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조선로동당 1979: 216)”한다고 밝힌다. 또한 남성과 여성 간의 법률적 평등조치는 여성을 노동주체로서 호명하지만 정책적으로 ‘모성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여성은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로 정체화 하게 된다.

북한은 먼저 탁아소·유치원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을 내세우게 되고 잇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해 가사노동의 집단화, 공동화를 추진하게 된다(김선옥 외 1992: 71). 나아가 북한은 노동력 동원을 뒷받침하는 제조건으로 모성보호정책을 강력히 내세워 유해노동금지 및 문화위생적 노동조건 마련하고 일반여성 및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사회주의로동법 제59조)”

“여성들과 녀맹원들 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과 같은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적 조직생활이 강화됨으로써 여성들은 우리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강한 조직성과 혁명성, 다방면적인 지식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었다(근로단체출판사 1990: 11)”

1972년 이후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식 독자노선과 주체사상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자로 인정

받은 여성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고자 한다.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개인의 이익은 전혀 무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인간이었다(김선육 외 1992: 188).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침체와 붕괴,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자력갱생' 모델의 한계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역동성은 현저히 감퇴한다(김성보 외 2013: 279). 북한은 경제침체를 타계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중동원에 나서는 한편,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여성정책들을 점차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가 여성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

북한의 슈퍼우먼으로 성장하여라!

이로써 여성들은 이제 단순히 여성노동자가 아니라 "슈퍼우먼"이 되어야 했으며 북한 지도부 역시 슈퍼우먼, 즉 직장일과 더불어 가사노동, 자녀 양육을 모두 소화해내는 여성상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17년 전 함지원 철길대에서 철길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던 명옥 동무는 군수송 배전소의 제대군인인 춘호 동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 그 이후 남편의 보조공으로 일하면서 혼자 자습을 하여 4년 후에 그는 송전선로공 4급공의 자격을 받게 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가정부인이 남편의 일을 좀 도와주면 됐지 얼마나 큰 일을 하겠기에 그리 애를 쓰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남편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 안해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남편과 함께 지킨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제 몫을 당당히 하려면 기술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 일을 할 때면 배워주기도 해야지요." 그는 작업반 명단에는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초

소의 주인으로, 보선 작업반원으로 여기기에 그는 언제나 작업반 일을 주인처럼 찾아 했다(《조선녀성》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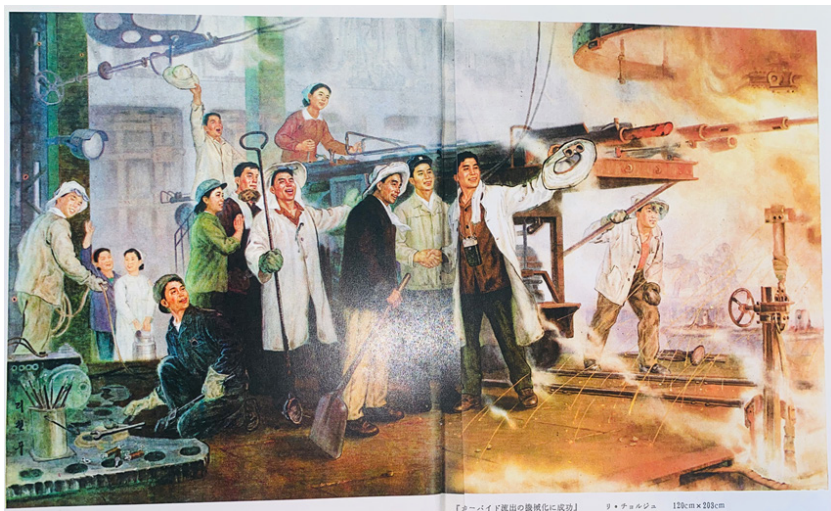
명옥은 철길 관리원이지만 결혼 후 남편의 일까지 돕는다. 또한 독학으로 송전선로공 4급공 자격을 얻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당의 혁명초소를 지키고 남편을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맡은 일과 남편, 아이들, 당의 임무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작업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처럼, 주인처럼 해낸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열정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가정과 사회생활을 해내는 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꼭 장명옥처럼 남편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내조 형식이 아니더라도 가내부업 형태의 노동이나 시급한 건설에 가정부인들이 지원을 나가는 것이 거의 제도화 되어 있다(김귀옥 외 1992: 104). 장명옥은 한계에 부딪친 자력갱생을 타계할 이상적 여성상으로 제시됨으로써 1980년대 이후 북한 여성이 부담하게 된 이중노고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제작된 이철주의 「탄산칼슘 추출의 기계화의 성공」과 1968년 제작된 최계근의 「용해공」은 모두 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의 노동자를 그려내고 있다. 북한의 회화는 지도자의 모습과 더불어 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의 노동자의 모습을 많이 다루었는데(남재운 2008: 123), 두 작가가 그려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계근의 「용해공」은 쇠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색이 작품 중심에 위치한 인물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큰 불길에서 녹여지는 쇠물의 은유를 통해서 노동력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물들만을 뚜렷하게 그리고 배경을 흐리게 표현하여 인물들에 선명성을 부여했다(조인규 외 1990: 124). 또한

머리에 쓴 수건을 휘날리며 씻물을 향해 나아가는 노동자는 마치 전투를 하듯 매우 역동적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혁명의 역군, 남성 노동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70년대 후반 등장한 이철주의 『탄산칼슘 추출의 기계화의 성공』은 어떠한가? 작품에는 남성노동자가 더불어 4명의 여성이 등장하며, 한 여성 노동자는 탄산칼슘을 추출하는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조되는 인물들은 여전히 남성들이다. 여성들은 모두 왼쪽에 몰려있는 반면, 작품의 중심에는 남성 연구원 혹은 노동자 3, 4명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기계화 성공을 서로 축하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다. 여성 두 명은 작품 왼쪽 구석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외부자이며, 한 명은 남성에게 기대어 신기한 듯 바라본다. 혁명적 여성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여성이지만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뿐더러 묘사가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않다. 역동적인 남성인물들의 표정과 제스처와는 상당히 대비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건설의 주역, 노동자가 될 수 있지만 “남성만이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창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프리단 1964: 175)”라는 젠더규범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킨다는 이념아래 여성은 3대 혁명과 각종 산업분야에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산업역군은 아니었다. 여성 자신이 사무직을 시작으로 각종 경공업에 들어가 노동자가 되거나 재생산을 통해 혁명을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키워내야 했다. 즉 여성은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이지만 동시에 보조바퀴인 것이다.⁵

5 “북한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말하면서 전통가족을 “붉은 가정”으로 바꿨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정병호, 2020, 『고난과 웃음



이철주, 「탄화칼슘 추출의 기계화의 성공」, 1970년대 후반,
120x203cm, 조선화



최계근, 「용해공」, 1968, 조선화, 평양미술박물관소장

4. 사회주의 대가정 혹은 가부장제로의 회귀

우리의 아버지 수령, 우리의 어머니 당!

북한의 경제침체는 1989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더욱 가시화된다.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김성보 외 2013: 330). 북한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단결의 힘을 모으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창하게 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된다(김성보 외 2013: 330). 사회적 단결의 필요성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생물학적 혈연관계인 부모자식 관계처럼 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을 아버지로 당을 어머니로 '섬기는' 인민이 되라는 것이다(정병호 2020: 280). 이와 동시에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이 실질적인 북한의 지도자로 부상하며 선군정치를 시작하게 된다.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하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으로 설정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어나가고자 하는 정치이다(박계리 2016: 110). 사회주의 대가정과 선군정치의 결합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형태를 다시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본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고 녀성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1946)"이라고 명시한 바, 즉 비판의 대상이었던 가부장제라는 전근대적 가족질서를 다시 강화하게 된 것이다. 수령은 아버지인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 건설을 이끌어가는 군대의 지도자인 반면, 당은 수령을 보좌하는 어머니로 집약할 수 있을 것

의 나라』, 파주:창비, p. 278.)

이다. 어머니 당의 역할은 자녀인 인민들이 사회주의 비전과 수렁에 다가가게 하는 중간자적 역할인 것이다.

김정숙, '여성성의 신화'의 중심에 서다

김정일 시대부터 '김정숙'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여성성의 신화는 가시화된다. 프리단(1963)은 여성성의 신화가 15년 넘게 미국 여성에게 성적이지 않은 인간적 목적을 '세뇌'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신화를 붙잡았던 사람들과 자신들을 위해 신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진정한 요구를 채워준 게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김정숙은 김정일이 8살이 되던 해에 죽었지만 김정일 시대에 '선군의 어머니'로 북한 사회에 소환된다. 김정숙의 등장은 김정일의 필요와 정치적 요구에 기인한 것이다. 김정숙의 신화가 김정일의 체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대가정의 이상적 어머니상을 제시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변화된 정권에 충성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집권기에도 김정숙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으나 김정일 시대에 등장한 김정숙과는 결이 다르다. 김정숙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40년 '대사하치기 전투'로, 김정숙이 일본군의 포위와 저격으로부터 김일성을 보위하였다고 하여 유명해진 전투다(박계리 2012: 58).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을 향한 김정숙의 충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성차별적 해석보다는 "김일성에 대해 충성을 다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과 동등하게 활동하는 전사로서의 이미지(박계리 2016: 108)"가 강했다. 김정숙은 실제로 항일혁명투사이자 여성해방운동의 지도자로 해방 이후 여성들의 정치조직인 여성동맹을 발전시키고 잡지 《조선녀성》의 창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혁명투사로서 김정숙'은 약해지고 '군대의 어머니'로서 김정숙



「삼일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와 사랑하는 아드님께 높은 사격술을 보여드린 김정숙어머니」
조선화

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녀에 대한 호칭이 '조선의 여성장군'으로 변화했지만 여기서 방점은 '여성'에 가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이 등장하는 회화에서 그녀의 손에 총이 쥐여지지 않거나 총이 있더라도 전투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대신 김정숙의 옆에는 아이, 군인,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있어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머니로 묘사된다.

박계리(2016)는 김일성 사후 선군사상의 대두와 함께 김정숙 이미지에 있어서 총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숙이 아들 김정일에게 전쟁을 이끄는 장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전술 등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등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삼일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와 사랑하는 아드님께 높은 사격술을 보여드린 김정숙어머니」에서 김정숙은 총을 들고 있음에도 김정일의 '어머니'로서 모습이 더욱 강조된다. 우선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이 등장하지만 김정숙만이 앉아 있다. 그렇기에 그녀는 7-8살 아들, 김정일보다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도 어머니로서 김정숙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은 김정숙이 쏜 총알이 날아간 방향을 바라보는 설정이지만 정면을 똑바로 응시함으로써 마치 국가지도자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느낌을 준다. 반면 김정숙은 아들 김정일을 따뜻하게 웃으며 바라본다. 김정일의 표정이 김정숙의 미소와 대비되어 더욱 진지하고 근엄하게 보이기에 오히려 김정숙의 표정이 아이 같다고 느껴지기까지 한다. 또한 김정숙은 사격을 했지만 한복을 입었고 다소곳하게 앉아있어 온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총을 손에 쥔 김정숙보다 망원경을 든 소년 김정일에게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표정뿐만 아니라 그의 손이 망원경을 매우 단단히 잡고 있고 그의 몸이 곧이 서있게 온 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을 감상자로 하여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국가의 영원한 아버지라면 김정숙은 국가 지도자의 성장을 돕고 보좌하는 어머니인 것이다.

5. 나오는 글

: 여성들이 혁명화되면 결국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와 맞물리며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져 “가두 여성(가정주부)”이 되었다(심영희 2003: 167).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부녀연맹에 의해 집회와 행사에 동원되었고(구수미·오유석 2004: 328), 대기근 이후 남성들도 가정에 돌려보내지자 생계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상당수의 가정에서 남성은 가사노동도 하지 않고 “얼굴이 깎인다”는 이유로 장사도 하지 않았다(심영희 2003: 167).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중노고를 겪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인민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기에 더욱 상황은 심각해진다.

“북한 지도부가 설정한 여성의 본보기는 대안의 세계를 상상하게 할 자화상이었는가, 아니면 여성 자신과 크게 관련이 없는 대중화된 여성상이었는가?”

앞서 「남강마을의 녀성들」을 분석하며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분명 북한 지도부가 설정한 여성의 본보기는 동시대 다른 자본주의사회와 비교했을 때 가히 혁명적이었다. 20세기 중반 미국 백인 가정주부들이 침대를 정리하면서,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의자에 커버를 씌우면서, 아이들과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아이들을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에 태우고 다니면서, 그리고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는(프리단 1963: 61) 동안 북한 지도부는 혁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여성을 사회로 불러냈다. 《조선녀성》, 《로동신문》은 끊임없이 일하는 여성을 이야기 했고 조선화는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실제로 북

한 지도부가 대중화 하고자 한 여성상은 일정 시기동안 현실의 여성의 삶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침체되고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자 여성은 다시 가부장제 사회로 회귀되었다. 북한 건국 초기 약속했던 여성해방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책에서 은연 중 강조되어온 모성적 존재로서 여성은 여성의 삶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정권이 정책과 문화를 주도하며 형성한 혁명적 여성인민의 자화상은 요컨대 수령 어버이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혁명의 어머니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에서는 김정숙을 상징으로 하는, 인민의 어머니, 가정에서는 남편의 일과 자녀의 학습을 돕는 동시에 가사 노동을 하는, 슈퍼우먼일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여성성의 신화일 뿐이다. 그럼에도 북한 여성은 여전히 슈퍼우먼의 여성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가 해방하지 못한 여권이 비공식적 영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공식적인 경제, 장마당과 시장은 여성들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공급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고 장보러 나온 소비자들도 매일 살림을 해야 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정병호 2020: 312). 공식적 영역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정병호 2020: 313). 장마당과 시장은 북한의 여성성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혁명의 어머니는 계속 북한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북한 자료>

홍의정, 1987, 『주체미술의 대전성기』, 평양: 조선미술출판사.

『로동신문』

『조선녀성』

『현대의조선화』, 1980.

『조선화보= Korean pictorial』

<국내 단행본>

강민기 외 5명, 2016, 2016, 『북한미술 어제와 오늘』,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김귀옥·김선임·이경하·황은주, 1997,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대동.

김상애 외 5명, 2019, 『페미니즘 고전을 찾아서』, 성남:에디투스.

김성보·기광서·이신철, 2013,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파주:웅진지식하우스.

문범강, 2018, 『평양미술: 너는 누구냐』, 서울:서울셀렉션.

정병호, 2020, 『고난과 웃음의 나라』, 파주:창비

프리단, 베티(김현우 역), 『여성성의 신화』, 서울:갈라파고스.

<국내 학술지>

김선옥·김원홍·김영혜·김동령, 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6): 1-284.

김석향, 2006,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0(1): 25-51.

남인숙, 2001, “북한사회주의와 여성해방론”, 『북한법연구』 4: 109-131.

남재운, 2008, “1960-70년대 북한 주체 사실주의 회화의 인물 전형성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 114-138.

박계리, 2012a, “남강 여인, 억센 손에 장총을 부여잡고 전진”, 『통일한국』 342: 60-61.

____ 2012b, “김정숙, 선군의 어머니로 이미지화”, 『통일한국』 343: 58-59.

____ 2019, “북한미술에서 리얼리즘 개념의 변화와 ‘전형론’”, 『현대미술사연구』 46: 143-164.

심영희, 2003,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45(2): 151-194.

전지영, 2007,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선군대가정'이 된 북한사회", 『통일한국』 282: 30-33.

홍지석, 2013, "북한식 '미술가'개념의 탄생: 전전 미술의 대중화, 인민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1): 229-248.

____전영선, 2014, "북한의 미적범주론-리기도 『주체미학』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57: 427-455.

<언론자료>

『경향신문』, "한국 여성 페미니즘의 역사", 2018년 7월 21일자.

『프레시안』, "정세균, 강남역 살인 4주기에 "여성에 대한 범죄 끝까지 추적""", 2020년 5월 17일자.

New York Times, "Betty Friedan, Who Ignited Cause in 'Feminine Mystique' Dies at 85", 2006년 2월 5일자.

